

소현세자의 체질과 사망원인분석

김종덕*

시당한의원

Abstract

The Crown Prince Sohyen's Constitution on the Basi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nd Cause of Death

Jong-Dug Kim

Sadang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linic

1. Objectives

The Crown Prince Sohyen(1612-1645) has been believed to have been poisoned to death because of the political conflict with the King Injo. However, the Crown Prince Sohyen who was So-yangin(SY type) didn't be treated properly at that time. This paper is supposed to explain the reason why he died by reference.

2. Methods

The prescription which was made out to the Crown Prince Sohyen is analyzed, based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SCM) through Shimyang-ilgy and Ulyudongkung-ilgy.

3. Results

- 1) In the case of the prescription where So-yang medical stuffs were contained a lot or Gonyak(the main medical stuff) was So-yang one, the Crown Prince Sohyen was better, while that of Tae-eum and So-eum medical stuffs didn't work. Therefore, the Crown Prince Sohyen can be considered So-yangin.
- 2) The So-yangin's symptom was misunderstood as Hakjil and treated, which could lead him to be put to death.

4. Conclusions

The Crown Prince Sohyen is supposed to be Soyang-in(SY type), and accordingly the So-yangin's symptom was misunderstood as Hakjil and treated, which could cause him to pass away.

Key Words : Crown Prince Sohyen, Soyangin, Shimyang-ilgy, Ulyudongkung-ilgy, Poisoning

I. 緒 論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는 세자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귀국직후

젊은 나이에 사망한 비운의 왕자였다. 소현세자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인조와의 불화설에 근거한 독살설이 학계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¹⁾ 하지만 심양일기와 을

• 접수일 2009년 06월 30일; 심사일 2009년 07월 11일;
승인일 2009년 08월 04일
• 교신저자 : 김종덕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당2동 144-7 시당한의원
Tel : +82-2-599-1772 Fax : +82-2-592-6370
E-mail : sa-dang@hanmail.net

1) 金龍德, 『朝鮮後期思想史研究』, 을유문화사, 1977: 425-435
박성준, 『선비의 배반』, 고즈윈, 2004:158-163
서정우, 『사건과 인물로 읽는 이야기 조선왕조사』, 푸른 숲, 1996:216-228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푸른역사, 1998:71-108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의 正統성논쟁 研究』,

유동궁일기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소현세자가 독살이 아닌 질병사임을 밝히고자 한다.

‘규장각 소장 중요 자료 역주 사업’에 참여했던 필자는 2007년 규장각에 제출한 「소현세자 병증과 치료에 대한 연구」⁷⁾에서 소현세자가 독살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그 후속연구로 세자에게 사용된 처방을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분석함으로써, 왜 세자의 체질을 소양인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의 소양인한 열왕래를 음허오열로 보지 않고 확실히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심양일기⁸⁾와 을유동궁일기⁹⁾에 기록된 것만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임을 밝힌다. 참고로 소현세자의 세자일기는 심양일기와 을유동궁일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문에서 언급된 세자일기는 심양일기와 을유동궁일기를 포함한 말임을 밝힌다.

II. 本 論

1. 소현세자 체질에 대한 논의

과거 역사적 인물의 체질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소현세자를 어느 체질로 볼 것이냐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세자의 체질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현재 소현세자를 진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세자일기에 기록된 내용에서 체질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며, 체질처방을 사용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또한 세자의 신분은 행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을 것이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세자일기에 있는 내용만으로 소현세자의 체질을 분석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자일기에 기록된 소현세자의 병증을 분석해보면 소양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병증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체질병증론에 해당되는데 체질에 따른 병증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세자의 체질을 어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세자의 병증의 흐름을 읽고 예측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소현세자가 복용한 한약의 처방을 하나하나 분석해하여 어떠한 체질약재를 많이 복용하였을 때 효과가 있고 없고를 비교분석하면 세자의 체질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약진론으로 약물에 따른 체질반응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체질을 판단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1) 소양병증이 기록되어 있다.

『東醫壽世保元』¹⁰⁾에 의하면 ‘장중경이 분류한 소양병증(少陽病證)은 입이 쓰고, 목이 마르며, 목현(目眩), 이롱(耳聾), 흉협만(胸脇滿), 한열왕래(寒熱往來), 두통(頭痛), 발열(發熱)하며, 맥은 현세(弦細)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소양인에게만 나타난다.’²⁾라고 하였다. 심양일기에 나타난 소현세자의 증상 가운데 소양병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40년 7월 18일. 세자에게 귀가 아픈 증세가 약간 있어서 宰臣과 講官이 문안하니 “그리 대단하지는 않다”라고 답하였다.³⁾

세자가 귀가 아픈 증상만 가지고 소양병증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더구나 이통(耳痛)을 이롱(耳聾)으로 보기에 더욱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통(耳痛)의 원인과 종류가 많으며 어느 체질이나 모두 올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근거만 가지고 소현세자의 증상을 소양병증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귀가 아픈 증상을 이롱(耳聾)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양병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641년 2월 17일. 아침에 의관에게 하령하기를 “어제 밤부터 감기가 들어 머리가 아프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기침과 천식이 있다”라고 하였다.⁴⁾

소양병증의 특징인 한열왕래(寒熱往來) 두통(頭

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醫源論』, 以口苦 咽乾 目眩 耳聾 胸脇滿 寒熱往來 頭痛 發熱 脈弦細者 謂之少陽病證. (중략) 少陽病證 卽少陽人病證也.

3) 『瀋陽日記』, 1640년 7월 18일, 世子微有耳痛之候 宰臣講官問安 答曰 不至大段.

4) 『瀋陽日記』, 1641년 2월 17일, 朝 下令于醫官曰 自昨夜感寒 頭痛寒熱往來 失音咳嗽矣.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154-164.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集文堂, 1998: 186-190.

Table 1. 각 의서에서의 九味羌活湯의 처방구성 (단위 : 錢)

의서	강황	방풍	창출	천궁	백지	황금	생지	세신	감초	생강	대조	총백
玉機微義(1396)	1.5	1.5	1.5	1	1	1	1	1	1			
醫方類聚(1445)	1.5	1.5	1.5	1	1	1	1	1	1			
薛氏醫案(1529)	1.5	1.5	1.5	1	1	1	1	0.5	1			
醫方集略(1545)	2	1.5	2	1.5	1	1	0.8	0.5	0.3	三片	二枚	五匙
證治準繩(1602)	1.5	1.5	1.5	1	1	1	1	0.5	1			
東醫寶鑑(1613)	1.5	1.5	1.2	1.2	1.2	1.2	1.2	0.5	0.5	三片	二枚	二莖
辟疫新方(1613)	2	1.5	1	1.5	1	1	1	0.5	0.5	三片		三莖
景岳全書(1624)	1	1	1	1.5	1.5	1.5	1.5	0.7	1.5	三片	一枚	
通雅(1639)	2	1.5	1	1.3	1	1	1	0.3	0.3	三片		一莖
舟村新方(1687)	1.5	1.5	1.2	1.2	1.2	1.2	1.2	0.5	0.5	三片	二枚	二莖
及幼方(1749)	1.5	1.5	1.2	1.2	1.2	1.2	1.2	0.5	0.5	三片	二枚	三莖
增補山林經濟(1766)	1.5	1.5	1	1	1	1	1	0.3	0.3	三片	二枚	二莖
廣濟秘笈(1790)	1.5	1.5	1	1	1	1	1	0.5	0.5	三片	二枚	三莖
林園經濟志(1827)	1.5	1.5	1.2	1.2	1.2	1.2	1.2	0.5	0.5	三片	二枚	二莖
宜藥(1871)	1.5	1.5	1.2	1.2	1.2	1.2	1.2	0.5	0.5	三片	二枚	二莖

痛) 발열(發熱)이 모두 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건(咽乾)으로 인한 증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자의 감기증상이 소양병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양인의 특징으로 보인다.

1643년 12월 12일. 지난 밤 세자가 의관 박군(朴頤)을 안으로 불러들여 하령하기를, “기가 매우 고르지 못하고 오한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물러가 보되와 상의하여 약을 지어 들이라”라고 하였다. 세자의 불편한 증세가 낮이 되자 더욱 심해졌다. 의관 박군과 채득기(蔡得沂)를 불러 진찰하게 하니, 오한(惡寒) 때문에 자꾸 열이 나고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입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보아 찬바람 때문에 심한 감기에 걸린 듯하다고 하였다.⁵⁾

세자가 밤에 오한(惡寒)으로 고생하며 실음(失音)하였다는 것은 1641년 2월 17일 감기로 실음(失音)한 것과 흡사하다. 정오경에 더욱 심해져 오한번열(惡寒煩熱) 두목현훈(頭目眩暈) 구건인음(口乾引飲) 증

상이 나타나니 이는 전형적인 소양병증으로 소양상풍증(少陽傷風證)으로 볼 수 있다.⁶⁾ 그리고 세자의 증상 중의 하나인 번열(煩熱)은 흉협만(胸脇滿)으로 볼 수 있으며, 구건인음(口乾引飲)은 구고인건(口苦咽乾)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소양상풍증으로 볼 수 있다. 세자의 증상이 더 심해지면 이롱(耳聾,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증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근거로 보아 소현세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소양병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양인의 감기증상으로 볼 수 있다. 소현세자가 감기에 걸렸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오지만 대부분 그 증상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그 전말을 알기 어렵다. 그러나 1641년 2월 17일, 1643년 12월 12일의 기록은 세자의 감기증상이 비교적 자세히 적혀있어 세자의 체질 판단근거가 된다.

5) 『瀋陽日記』, 1643년 12월 12일, 去夜 世子招醫官朴頤於內 下令曰 氣甚不平 惡寒失音 退與輔德相議 劑藥以入. ○世子未寧之候 至午有加. 招醫官朴頤蔡得沂診察 則惡寒煩熱 頭目眩暈 口乾引飲 似是重感風寒之候.

6)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張仲景曰 少陽之爲病 口苦咽乾目眩. 眩而口苦 舌乾者 屬少陽. 口苦耳聾胸滿者 少陽傷風證也. 口苦咽乾 目眩耳聾 胸脇滿 或往來寒熱而嘔 屬少陽 忌吐下 宜小柴胡湯 和之. 論曰 此證 不當用小柴胡湯 當用荊防敗毒散 荊防導赤散 荊防瀉白散

(2) 처방분석

사상체질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약을 복용하고 난 후의 반응을 살펴보는 약진론이다. 하지만 소현세자가 복용한 한약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음 몇 가지의 애로점이 있다.

첫째, 세자일기에 적혀진 처방의 구성이 무엇이나의 문제이다. 세자일기에 나오는 처방은 처방명만 적혀있지 약재가 모두 적혀있지 않다. 예를 들면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을 처방하였다고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강활 방풍 등의 약재를 서술하지 않았다. Table 1에 보이듯이 의서에 따라 그 처방구성과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 그럼 당시의 의관들은 어떠한 의서를 기준으로 보았을까? 소현세자(1612~1645)의 생존시기와 신분을 감안하면 1613년에 출간된 『東醫寶鑑』 11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리라 추정된다. 당시의 『東醫寶鑑』은 선조와 광해군에 걸쳐 우리나라 국가 사업으로 집필된 것으로 동양 최고의 한의서라 할 수 있고, 왕세자 주치의라면 왕실에서 집필된 『東醫寶鑑』을 준거로 삼았을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기본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둘째, 처방에 사용된 약재간의 비율의 문제이다. Table 1에 보이듯이 의서에 따라 약재간의 비율이 다르다. 그리고 약재가 작용되는 성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약재간의 비율은 무시하고 단지 어떠한 체질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나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처방 구성약물의 경향성을 비교 검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고 세자일기에 나타난 처방을 사상의학의 입장에서 분석해보기로 하자.

1638년 3월 19일. 세자에게 감기기운이 있는 것을 알아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을 지어 바쳤다.⁷⁾

세자가 구미강활탕을 복용하고 효과가 좋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처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기가 치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한 감기이었기에 금방 치유된 것인지, 아니면 구미강활탕의 효과가 좋아서 빨리 치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7) 『瀋陽日記』, 1638년 3월 19일, 始審世子有感冒之候. 3월 20일, 劑進九味羌活湯.

1639년 6월 13일. 더위 먹은 증세가 대단한 정도는 아니지만 음식 맛을 잃은 지 오래된 세자에게 백작약(白芍藥) 1돈, 진피(陳皮), 볶은 신국(神麴) 7푼 등을 가미한 유령탕(藜苓湯) 2첩을 지어 올렸다. 다음날 문안드리니 “어제 들인 약 1첩을 복용하고 이미 차도가 있는 것 같으니, 문안하지 말라”라고 답하였다.⁸⁾

일반적으로 유령탕은 여름철에 설사를 앓다가 이질(痢疾)로 변하려고 할 때 사용하거나, 번갈로 소변이 적색이 되고 물설사를 할 때 사용한다.⁹⁾ 소양인 약재로 분류되는 택사(澤瀉)가 군약이며, 저령(猪苓), 적복령(赤茯苓), 황련(黃連)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진피(陳皮)와 신국(神麴)을 첨가한 까닭은 세자에게 식체(食滯)가 있어 이를 풀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더위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고 설사가 동반된 증상에 이수(利水)시키는 유령탕을 복용했더니 효험을 본 것으로 보인다. 유령탕 1첩에 증상이 호전된 것을 보면 세자에게 유령탕이 잘 맞는 처방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더위 먹은 것이 약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위 먹었을 때 1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세자에게 유령탕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

1640년 9월 12일. 세자가 목이 타고 마르는 증세가 있으면서 오른쪽에 마목(麻木)증상이 있어 퇴열탕(退熱湯)을 조제하여 들었다. 그러나 차도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아 가입퇴열탕 5첩을 또 조제하여 들었다.¹⁰⁾

퇴열탕은 체표(體表)에 허열(虛熱)이 있으며 밤에 더욱 심해지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황기 1돈3푼, 시호 1돈, 생감초 황련 황금 적작약 지골피 생지황

8) 『瀋陽日記』, 1639년 6월 13일, 仍下令于醫官曰 近患暑症 不至大段 而食飲失味久矣. 其與諸醫議藥以入. (중략) 醫官劑進 加入白芍藥炒一錢 陳皮 神麴炒七分, 藜苓湯二貼.
6월 14일, 宰臣以下問安. 答曰 昨服所進之藥一貼 已似差歇 勿爲問安.
9) 許浚, 『東醫寶鑑』, 「暑泄」, 煩渴尿赤 暴瀉如水 宜藜苓湯 加白芍藥 車前子 或桂苓甘露飲(入門)
許浚, 『東醫寶鑑』, 「藜苓湯」, 治夏月泄瀉 欲成痢 澤瀉一錢二分 猪苓 赤茯苓 白朮 香薷 黃連薑汁炒 白朮厚朴製 各一錢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水煎服(集略)
10) 『瀋陽日記』, 1640년 9월 12일, 世子咽喉有焦乾之候 右邊亦有麻木之証 (중략) 議藥退熱湯劑入.
9월 15일, 玉候未寧, 停望殿禮.
9월 19일, 加入退熱湯五貼又劑入.

창출 각7푼, 당귀신 승마 각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시호 황련 지골피 생지황 등이 소양인약재이나, 소음인약재인 황기가 주된 약이다. 이 처방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가입퇴열탕으로 바꾸지만 역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1640년 9월 24일. 세자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가입사물탕 3첩을 조제하여 들이고, 26일 7첩을 또 조제하여 들었다.¹²⁾

그동안 퇴열탕 또는 가미퇴열탕을 사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자 이번에는 가입사물탕으로 바꾸었다. 가입사물탕은 혈병(血病)에 주로 사용되는 사물탕에 다른 약재를 가미한 것이다. 가입사물탕의 종류가 매우 많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방을 사용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¹³⁾ 여기에서는 길경 감초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 황백 지모 천화분 등을 달이고 여기에 죽력(竹瀝)을 넣어 복용하는 『東醫寶鑑』의 가미사물탕(加味四物湯)일 가능성이 높다. 이 처방은 허화(虛火)와 후비(喉痺) 후통(喉痛) 후창(喉瘡) 등을 치료하는데 화(火)를 가장 잘 내린다고 한다.¹⁴⁾ 따라서 세자의 마목증상을 허화로 보아 혈(血)을 보하는 가미사물탕을 사용한 것이다. 가입사물탕을 처음에 3첩을 조제하

고 다음에 7첩을 조제한 것으로 보아 가입사물탕을 복용후 일정정도 호전이 있기에 더 많은 분량을 조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마목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계속 처방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1640년 10월 19일. 세자에게 감기기운이 조금 있어서 가감충화탕으로 다시 바꾼다.¹⁵⁾

가감충화탕(加減沖和湯)은 방풍충화탕(防風沖和湯)이라고도 하는데, 봄 여름 가을에 풍한감모로 머리가 아프고 몸에서 열이 나며, 저절로 땀이 나고 오한이 나며, 맥이 부완한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강활 방풍 각1돈반, 백출 천궁 백지 생지황 황금 각1돈, 세신 감초 각5푼, 그리고 생강 총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 강활과 방풍이 군약으로 소양인약재이다. 이후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효과여부를 알 수 없다.

1641년 2월 6일. 잠시 설사를 하고 속이 불편한 징후가 있어서 평위산(平胃散)에 백작약 적복령 각1돈, 청피 지각 신국(초) 각7푼 등을 더하여 2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그러나 2월 9일 설사증세가 오래도록 낫지 아니하여 배속이 더욱 불편하여 수라 드시기를 싫어하므로 다시 약을 의논하여 사령산(四苓散)에 갈아 볶은 차전자 2돈, 신국(초), 연육(蓮肉) 각1돈씩 더 넣어 3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2월 11일 병이 다 치료되었다.¹⁷⁾

평위산은 비위가 불화(不和)하여 음식생각이 없고 명치 밑이 아프며 헛배가 부르고 구역질과 트림이 나며 신물이 올라올 때 사용하는 처방으로 위장을 보해주는 약이 아니므로 오래 쓸 약은 아닌데, 창출 2돈, 진피 1돈4푼, 후박 1돈, 감초 6푼, 생강 3쪽, 대조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세자는 평위산을 복용후 호

11) 許浚, 『東醫寶鑑』, 「退熱湯」, 治表中虛熱 遇夜則甚 黃芪一錢三分 柴胡一錢 生甘草 黃連酒炒 黃芩 赤芍藥 地骨皮 生地黃 蒼朮 各七分 當歸身 升麻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服(東垣)

12) 『瀋陽日記』, 1640년 9월 24일, 玉候未寧 更爲議藥 加入四物湯三貼劑入 9월 26일, 加入四物湯七貼又劑入.

13)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血虛 眩暈卒倒 不可艾灸 驚哭叫動 動則乘虛而死矣. 當歸 川芎 白芍藥 生地黃 熟地黃 黃芪 人參 白朮 陳皮 白茯苓 荊芥穗 甘草 各七分 右剉 棗二枚 烏梅一箇 煎服(回春)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血虛陰火 上衝頭痛. 當歸 川芎 生乾地黃酒炒 黃柏酒炒 知母酒炒 黃芩酒炒 黃連酒炒 蔓荊子 梔子炒 各七分 右剉作一貼 水煎服(回春)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濕熱 兩脚痿軟無力. 熟地黃二錢 當歸身 麥門冬 黃柏 蒼朮 各一錢 白芍藥 川芎 杜仲 各七分 人參 黃連 各五分 知母 牛膝 各三分 五味子九粒 右剉作一貼 水煎 空心服(正傳)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經斷後多年 忽然再行 遂成崩漏 腹痛寒熱 四物湯四錢 加入人參 吳茱萸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得效)

14) 許浚, 『東醫寶鑑』, 「加味四物湯」, 治虛火 喉痺喉痛 喉瘡 最能降火. 桔梗 甘草 各一錢半 熟地黃 白芍藥 各七分 當歸 川芎 黃柏蜜水炒 知母 天花粉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 入竹瀝一鍾服(回春)

15) 『瀋陽日記』, 1640년 10월 19일, 世子微有感冒之候 加減沖和湯三貼劑入.

16) 許浚, 『東醫寶鑑』, 「防風沖和湯」, 治春夏秋感冒風寒 頭痛身熱 自汗惡寒 脈浮緩. 羌活 防風 各一錢半 白朮 川芎 白芷 生地黃 黃芩 各一錢 細辛 甘草 各五分 右剉入薑三葱三 煎服 ○一名加減沖和湯

17) 『瀋陽日記』, 1641년 2월 6일, 以暫有泄瀉 腹中不安之候 平胃散 加入白芍藥 赤茯苓 各一錢 青皮 枳殼 神麴炒 各七分 二貼劑進.

2월 9일, 泄瀉之候 瀰留 腹中益不平 厭進水刺 更爲議藥 四苓散 加入車前子研炒二錢 神麴炒 蓮肉 各一錢 三貼劑進. 【兼治疝候.】

2월 11일,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 所患不至大段 勿爲問安

18) 許浚, 『東醫寶鑑』, 「平胃散」, 治脾胃不和 不思飲食 心腹脹痛 嘔噦惡心 噯氣吞酸 面黃肌瘦 怠惰嗜臥

전이 된 것이 아니라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진 것을 보면 소음인일 가능성은 없다.

반면 설사증상이 계속 심해지자 2월 9일 사령산(四苓散)을 처방하였다. 사령산은 택사 2돈반, 적복령 백출 저령 각1돈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백출을 제외한 택사 적복령 저령 3가지가 모두 소양인약제이다. 세자는 이를 복용하고 상태가 곧 호전된다. 사령산은 오령산(五苓散)에서 육계(肉桂)를 제거한 약이다. 오령산은 태양증(太陽證)이 리(裏)로 들어가 번갈아 되면서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에 주로 사용한다.¹⁹⁾ 이 중 택사 복령 저령 차전자 등이 모두 소양인 약재로 이수(利水)작용이 강하다. 따라서 세자가 복용한 한약은 백출과 신곡 그리고 연육을 제외한 약이 소양인에게 사용하는 약제이다. 오령산은 물을 먹어도 토하는 수역(水逆)에 사용되는데, 사상의학에서는 결흉병(結胸病)으로 가슴을 손대지 못하고 조갈(燥渴)과 섬어(譫語)가 있으면 형방도적산(荊防導赤散)을 사용한다.

1641년 2월 17일. 세자가 감기에 걸려 머리가 아프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기침과 천식이 있는데 인삼패독산(人蔘敗毒散)에 상백피(桑白皮) 행인(杏仁) 각1돈, 볶은 편급(片芩) 5푼 등을 더 넣어 3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2월 18일 조제하여 들인 약을 복용했더니 자못 효험을 보아 몸이 편안해졌다. 오후에 의관이 문안하니 여러 증세가 차도가 있으나 다만 기침이 나고 숨이 찰 때에는 머리가 은근히 아프고 가슴이 불안하며 또 오한기운이 있고, 토할 듯한 기분이 들고 갑자기 음식이 싫어지는 증세가 있다. 소시호탕(小柴胡湯)에 황련과 치자, 그리고 생강즙에 담갔다가 볶은 지각(枳殼) 각1돈을 더 넣어 3첩을 조제하여 올렸다. 다음날 호전되고 20일 완쾌되었다.²⁰⁾

常多自利 或發霍亂 及五噎八痞 膈氣反胃 等證 蒼朮二錢 陳皮一錢四分 厚朴一錢 甘草六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或爲末 取二錢 薑棗湯點服(入門) ○平胃散 決烈耗散之劑 實非補胃之藥 能瀉土氣之敦阜使之平耳 用之而胃氣和平 則便之不可常用也(丹心)

- 19) 許浚, 『東醫寶鑑』, 「五苓散」, 治太陽證入裏 煩渴而小便不利 澤瀉二錢半 赤茯苓 白朮 豬苓 各一錢半 肉桂五分 右爲末 每二錢 白湯調下 或剉作一貼 水煎服 ○傷寒汗後 亡津 但渴欲飲水者 邪在裏也 然上焦虛燥 或飲水不散 而反吐出 爲水逆證 或飲水雖多 而小便不利者 皆裏熱未實 不能消水故爾 五苓散的藥也(入門)

인삼패독산은 상한시기(傷寒時氣)로 인한 발열(發熱) 두통 항강(項強) 지체번동(肢體煩疼) 해수(咳嗽) 비색(鼻塞) 성중(聲重) 등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지각 길경 천궁 적복령 인삼 감초 각1돈, 생강 3쪽, 박하 약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적복령 박하 6가지가 소양인 약제에 해당된다. 인삼패독산에 형계와 방풍을 넣으면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이 되고, 이 처방이 소양인의 형방패독산으로 변형된다.²¹⁾ 즉 일부 약재를 빼고 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형방패독산은 사상의학에서는 소양인의 소양상풍증에 많이 응용되는 처방이다. 세자가 인삼패독산을 복용후 효험이 좋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자에게 효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644년 7월 3일 감기에도 인삼패독산이 사용되었다.

소시호탕은 소양병(少陽病)의 반표반리(半表半裏)증으로 추웠다 열이 났다 하는 것을 치료하고, 속의 열을 내리고 곁에 있는 사기[外邪]를 풀어 주는 처방으로 시호 3돈, 황금 2돈, 인삼 반하 각1돈, 감초 5푼, 생강 3쪽, 대조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²⁾ 이 처방은 소양인약인 시호가 균약으로 되어 있다. 소시호탕을 사용해야 하는 증상에 대하여 사상의학에서는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형방도적산(荊防導赤散) 형방사백산(荊防瀉白散) 등을 사용하고 있다.

20) 『瀋陽日記』, 1641년 2월 17일, 朝 下令于醫官曰 自昨夜感寒 頭痛寒熱往來 失音咳嗽矣.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知道 議藥人蔘敗毒散 加桑白皮杏仁 各一錢 片芩炒五分 三貼劑進.

2월 18일,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 劑入之藥 昨午一服 又於二更再服 頗得效和解 今又煎服矣 ○午後 醫官問安 答曰 諸症差減 而但咳嗽時 頭部隱痛 胸膈不安 又有惡寒惡心 頓厭飲食之症矣 ○宰臣講院與醫官議藥 小柴胡湯加黃連 梔子 並薑汁炒枳殼 各一錢 三貼劑進.

2월 19일,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 知道 已向差復 藥則連進矣.

2월 20일,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 已得平復 勿爲問安.

21) 許浚, 『東醫寶鑑』, 「人蔘敗毒散」, 治傷寒時氣 發熱頭痛 項強 肢體煩疼 及傷風咳嗽 鼻塞聲重. 羌活獨活 柴胡 前胡 枳殼 桔梗 川芎 赤茯苓 人蔘 甘草 各一錢 剉作一貼 入薑三片 薄荷少許 水煎服(醫鑿). (중략) 加荊芥穗 防風等分名曰 荊防敗毒散

22) 許浚, 『東醫寶鑑』, 「小柴胡湯」, 治少陽病 半表半裏 往來寒熱 能和其內熱 解其外邪 傷寒方之王道也 柴胡三錢 黃芩二錢 人蔘 半夏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入門)

1641년 4월 8일, 견갑(肩甲)이 당기는 증상이 있어 강활승습탕(羌活勝濕湯)에 지각, 형개수, 술에 담갔다가 붉은 황금 각7푼을 더 넣어 3첩을 조제하여 올렸더니 10일 증상이 좋아졌다.²³⁾

강활승습탕은 태양경(太陽經)이 한습에 상하여 목덜미가 뻐뻐하거나 빠질 것 같고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는데, 강활 독활 각2돈, 고본 방풍 감초 각1돈, 천궁 만형자 각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⁴⁾ 소양인약인 강활과 독활이 균약으로 사용된다. 10일 세자가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강활승습탕이 세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41년 11월 17일, 새벽부터 오른쪽 눈이 시큰거리는 증세와 오른쪽 눈의 흰자위가 매우 붉고 통증이 있었다. 두풍(頭風)과 위열(胃熱)증세로 보아 서각음(犀角飲)에 세폐산(洗肺散)을 합하고 방풍과 형개수(荊芥穗)를 각각 1돈씩 더하고 생강즙에 붉은 황련 5푼을 더하여 지은 약 3첩을 올렸다. 밤 2경에 눈동자의 통증이 심해졌다. 우선 염탕(鹽湯, 끓인 소금물)으로 씻게 하였다. 18일 염탕으로 씻은 뒤 통증이 조금 덜해졌다.²⁵⁾

서각음(犀角飲)은 화독이 성하거나 비위에 몰린 열이 눈에 올라와서 생기는 것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에 누런 고름이 고여 있고 눈이 아프며 깔끄러울 때 사용하는 것으로 서각 2돈, 강활 황금 차전자 각1돈, 백부자 맥문동 각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세폐산

(洗肺散)은 가래가 있는 기침과 열이 있고 폐기(肺氣)가 원활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반하 3돈, 황금 2돈, 천문동 맥문동 오미자 각1돈반, 행인 1돈, 감초 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⁷⁾ 세자는 이 처방을 복용후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하지만 생리식염수적인 염탕으로 눈을 씻었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든다.

11월 20일, 차도가 없고 왼쪽 눈에 또 통증이 있어 서각음에 세폐산을 합하고 추가로 더 넣은 것 중에서 방풍과 형개를 뺀 뒤, 적복령 2돈, 술에 붉은 적작약 1돈5푼, 독활 1돈 등을 더 넣어 지은 약 3첩을 올렸다.²⁸⁾

그러나 이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1월 23일,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세폐산에 시호 청피 각8푼과 오줌에 담갔다가 붉은 향부자 1돈 5푼, 감국 2돈, 맥문동 1돈 등을 더하여 3첩을 지어 올렸다.²⁹⁾

하지만 이도 효험이 없었다.

1642년 3월 13일, 비위가 약해져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은 증세가 있고 두 다리도 제법 시리고 아프니 아마도 낙상하여 그런 것 같다. 14일 오줌에 붉은 향부자 1돈과 술에 붉은 백작약 7푼, 사인 4푼, 목향 3푼 등을 넣은 육군자탕(六君子湯) 5첩을 지어 들이고, 도인(桃仁)도 달여서 함께 올렸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였지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뱃속이 꼬이는 듯 아파 편치 않고, 갈비뼈 아래는 당기면서 아픈 증세가 있는 듯하다. 어혈이 움직여 병이 생긴 것인가, 약이 증상에 맞지 않는 것인가? 발이 아픈 것은 몇었다.³⁰⁾

23) 『瀋陽日記』, 1641년 4월 8일, 因有肩甲牽引之候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 所患不至大段矣. 醫官入診後 議藥議鍼穴以進 鍼則風日不好停止 藥則羌活勝濕湯加入枳殼 荊芥穗 黃芩酒炒 各七分 三貼劑進.

4월 10일,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 症候向差 勿爲問安.
24) 許浚, 『東醫寶鑑』, 「羌活勝濕湯」, 治太陽經中寒濕項強 或似拔 不得回顧 羌活 獨活 各二錢 藥本 防風 甘草 各一錢 川芎 蔓荊子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服(東垣)

25) 『瀋陽日記』, 1641년 11월 17일, 午後 世子招醫官 下令曰 自曉 有右眼酸病之候矣 醫官出言 宰臣講院問安 答曰 不至大段 宰臣講院達曰 眼疾雖微 不可不急治 請令醫官入診後 議藥 答曰 知道 房內狹窄 只醫官入診 醫官鄭之間針醫李得吉 入診而出言 右眼白睛 暴赤疼痛 乃頭風胃熱之症云 犀角飲合洗肺散 加防風 荊芥穗 各一錢 黃連薑汁炒五分 三貼劑入. ○夜二更 招醫官 下令曰 眼睛痛甚 雖夜欲受鍼如何. 宰臣講院 趨會於閣門外 以夜深 不宜受鍼 明日 入診議穴 而姑以鹽湯洗之意 入達
11월 18일,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 鹽湯洗後 痛勢稍減 午間 當受鍼矣.

26) 許浚, 『東醫寶鑑』, 「犀角飲」, 治黃膜上衝 睛痛閉澁

犀角鎊屑二錢 羌活 黃芩 車前子 各一錢 白附子 麥門冬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 食後服(得效)

27) 許浚, 『東醫寶鑑』, 「洗肺散」, 治咳嗽痰盛 有熱 肺氣不清利 半夏三錢 黃芩二錢 天門冬 麥門冬 五味子 各一錢半 杏仁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入薑五片 水煎服(丹心)

28) 『瀋陽日記』, 1641년 11월 20일,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 無減 勿爲問安. 但左眼 又有微痛之疾矣. ○醫官入診後議藥 犀角飲合洗肺散加入中 去防風 荊芥 更加赤茯苓二錢 赤芍藥酒炒一錢五分 獨活一錢 三貼劑進.

29) 『瀋陽日記』, 1641년 11월 23일, 宰臣講院醫官問安 答曰 與昨一樣 因達曰 前日劑入之藥 今日當畢進 請令醫官 隨症加減議藥何如 答曰 知道 洗肺散 加柴胡 青皮 各八分 香附子便炒一錢五分 甘菊二錢 麥門冬一錢 三貼劑入.

30) 『瀋陽日記』, 1642년 3월 13일, 下令于醫官曰 近有脾

육군자당은 기(氣)가 허하여 담(痰)이 많아진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반하 백출 각1돈반, 진피 백복령 인삼 각1돈, 구감초 5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¹⁾ 여기에서 소양인약재는 백복령 1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음인약이다. 육군자당은 세자에게 별 효과가 없었다.

1643년 12월 12일, 지난 밤 세자가 하령하기를, “기가 매우 고르지 못하고 오한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물러가 보덕과 상의하여 약을 지어 들리라”라고 하였다. 즉시 삼소음(參蘇飲)을 지어 들었다. 세자의 불편한 증세가 낫아 되자 더욱 심해졌다. 오한과 번열이 나고 머리와 눈이 어지럽고 입이 말라 물을 자주 마시는 것으로 보아 찬바람 때문에 심한 감기에 걸린 듯하다고 하였다. 즉시 가입인삼강활산(加入人蔘羌活散) 2첩을 지어 바쳤다. 저녁에 문안하니 “낮 보다는 조금 덜하다”라고 답하였다.³²⁾ 13일 어제보다는 훨씬 낫다고 답하였다. 진찰하고 나서 증세가 어제 보다는 훨씬 멎었다고 하였다.

삼소음(參蘇飲)은 풍한(風寒)에 상하여 두통 발열이 있고 기침을 하거나, 안으로 칠정(七情)에 상하여 가래가 많고 흉만조열(胸滿潮熱)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으로 인삼 자소엽 전호 반하 건갈(乾葛) 적복령 각1돈, 진피 길경 지각 감초 각7푼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³⁾ 이중 전호 적복령 2개만이 소양인 약제일 뿐이다. 가입인삼강활산(가입인삼강활산)은 인삼강활산(人蔘羌活散)에 가미한 것이나 어떤 약재를 넣었

는지는 알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인삼강활산은 감기에 걸려 고열과 번열이 나면서 가래가 나올 때 사용하는데 강활 독활 시호 전호 지각 길경 인삼 적복령 천궁 감초 각2돈, 천마 지골피 각1돈, 박하 3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⁴⁾ 이 중 강활 독활 시호 전호 방풍 적복령 지골피 박하 등이 소양인 약제이다. 삼소음을 복용했을 때에는 증상이 심해지다가 인삼강활산을 복용 후에는 호전됨을 알 수 있다. 이에 1644년 3월 8일 감기에도 가입인삼강활탕을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

(3) 사상의학에서 본 소현세자의 체질

소현세자가 복용한 한약 중 효과가 없는 경우와 효과가 의문시되는 경우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처방과 가미한 약재의 개수를 표시하였으며, 약재를 체질약으로 분류하여 그 비율을 표시하였는데, 체질약이 편중된 경우 즉 40%이상의 체질약이 있는 경우를 굵게 표기하였다. 그리고 그 처방 가운데 제일 많이 사용한 약을 군약으로 표기하였다. 효과가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표기하였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소현세자가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소음인약재가 많이 들어간 경우 또는 태음인약재가 많이 들어간 경우였다. 그리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소음인약재가 많으나 군약이 소양인약재인 경우와, 소음인약과 소양인약이 같은 개수로 있는 경우였다.

소현세자가 복용후 확연하게 효과를 본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3)과 같은데, 소양인약재가 많은 경우와, 군약이 소양인약재인 경우였다.

결론적으로 세자일기에 처방된 것을 보면 소음인 또는 태음인약재가 많이 들어간 처방 그리고 소음인 약재가 군약인 경우는 효과가 없었지만, 소양인약재가 많이 들어간 처방 또는 소양인약재가 군약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호전반응이 많았다. 처방분석에 있어서 어느 체질약재가 더 많다고 하여 그 체질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胃虛弱惡心之候 兩脚亦頗酸痛 恐因落傷而然也 或藥或鍼 不可不預防痲結之患矣.

3월 14일, 加香附子便炒一錢 白灼藥酒炒七分 砂仁四分 木香三分 六君子湯五貼劑入 桃仁煎兼進.

3월 17일, 初昏 招醫官 下令曰 劑入之藥 已進三貼而未見有效. 腹中輪困不平 脇下似有牽痛之候. 痰動作患歟 藥不對症歟. 脚痛則止矣.

31) 許浚, 『東醫寶鑑』, 「六君子湯」, 治氣虛痰盛 半夏白朮 各一錢半 陳皮 白茯苓 人參 各一錢 甘草 五分 右剉作一貼 薑三片棗二枚 煎服(正傳) ○一方六味各一錢等分

32) 『瀋陽日記』, 1643년 12월 12일, 去夜 世子招醫官朴頤於內 下令曰 氣甚不平 惡寒失音 退與輔德相議 劑藥以入 宰臣講院問安 似煩勿爲之意 亦傳之 卽劑參蘇飲以入. ○世子未寧之候 至午有加 招醫官朴頤察得沂診察 則惡寒煩熱 頭目眩暈 口乾引飲 似是重感風寒之候. 卽劑加入人蔘羌活散二貼以進. ○夕時, 宰臣·講院·藥房問安. 答曰, 比午稍減.

33) 許浚, 『東醫寶鑑』, 「參蘇飲」, 治感傷風寒 頭痛發熱 咳嗽及內因七情 痰盛 胸滿潮熱 人參 紫蘇葉 前胡 半夏 乾葛 赤茯苓 各一錢 陳皮 桔梗 枳殼 甘草 各七分半 右剉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易簡>

34) 許浚, 『東醫寶鑑』, 「人蔘羌活散」, 治傷風寒 發熱 羌活 獨活 柴胡 前胡 枳殼 桔梗 人參 赤茯苓 川芎 甘草 各二分 天麻 地骨皮 各一分 右剉作一貼 入薄荷三葉 水煎服(綱目)

Table 2. 소현세자가 복용했으나 효과가 없었거나 효과를 알 수 없는 경우

처방	증상	소양인약	태음인약	소음인약	군약	효과
九味羌活湯	감기	3/12(25%)	2/12(17%)	7/12(58%)	강활 방풍	?
退熱湯	咽喉焦乾 麻木	4/11(36%)	2/11(18%)	5/11(45%)	황기	없음
加入四物湯	咽喉焦乾 麻木	4/10(40%)	2/10(20%)	4/10(40%)	길경 감초	?
加減沖和湯	감기	3/11(27%)	2/11(18%)	6/11(55%)	강활 방풍	?
平胃散+백작약 적복령 청피 지각 신곡	설사 복통	1/11(9%)	1/11(9%)	9/11(82%)	창출	없음
犀角飲+洗肺散+방풍 형개수 황련	眼酸病	5/15(33%)	6/15(40%)	4/15(27%)	서각 반하	없음
犀角飲+洗肺散+황련 적복령 적작약 독활	眼酸病	5/16(31%)	6/16(38%)	5/16(31%)	서각 반하	없음
洗肺散+시호 청피 향부자 감국 맥문동	眼酸病	1/12(8%)	7/12(58%)	4/12(33%)	반하	없음
六君子湯+향부자 백작약 사인 목향 도인	脾胃虛弱 惡心	1/11(9%)		10/11(91%)	반하 백출	없음
參蘇飲	惡寒失音	2/12(17%)	2/12(17%)	8/12(67%)	인삼 소엽	없음

Table 3. 소현세자가 복용한 처방중 효과가 있었던 경우

처방	증상	소양인약	태음인약	소음인약	군약	효과
藿苓湯	暑症, 食飲失味	4/9(45%)	1/9(11%)	4/9(45%)	택사	호전
四苓散+차전자 신곡 연육	설사 복통	4/7(57%)	1/7(14%)	2/7(29%)	택사	호전
人參敗毒散	感寒 頭痛 寒熱往來 失音 咳喘	6/12(50%)	1/12(8%)	5/12(42%)	강활 독활 시호 전호	호전
小柴胡湯+황련 차자 지각	咳喘時 頭部隱痛 胸膈不安 又有惡寒惡心 頓厭飲食	3/10(30%)	1/10(10%)	6/10(60%)	시호	호전
羌活勝濕湯+지각 형개수 황금	肩甲牽引	4/10(40%)	2/10(20%)	3/10(30%)	강활 독활	호전
人參羌活散	失音 惡寒煩熱 頭目眩暈 口乾引飲	7/13(54%)	1/13(8%)	4/13(31%)	강활 독활	호전

소양인 특유의 병증인 소양병증이 소현세자의 증상에 나타난다. 따라서 세자일기에 기록된 처방을 사상의학 입장에서 분석해보면 소현세자는 소양인으로 판단된다.

2. 소현세자는 독살이 아닌 오치로 사망한 것이다.

젊은 나이의 소현세자가 귀국 후 약 2달 만에 사망한 사건은 당시 조선에서는 제일 큰 사건이었다. 당시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세자의 죽

음에 대하여서는 별의별 추측이 난무하게 된다. 현재 소현세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조와의 불화때문에 나타난 독살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주된 근거로 인조 23년 6월 27일 『朝鮮王朝實錄』12의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 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鮮血)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먹목(幪目)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藥物)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인(外人)들은 아는 자가 없었고, 상(上)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종실 진원군(珍原君) 이세완(李世完)의 아내는 곧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서제(庶弟)였기 때문에, 세완이 내척(內戚)으로서 세자의 염습(斂襲)에 참여했다가 그 이상한 것을 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³⁵⁾를 들고 있다.

하지만 실록의 기록에 의문이 간다. 첫째, 청나라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세자는 심양에 있을 때부터 몸이 허약하였으며, 귀국한 이후의 기록인 「을유동궁일기」에 의하면 2월 18일 몸이 매우 불편하여 19일 하마연도 미루었다고 하였다. 또한 청나라에서부터 동행한 칙사가 세자의 건강을 염려하는 발언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보아도 세자는 귀국 당시에 이미 많이 쇠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병이 난 지 수일만에 죽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왕조실록에 4월 23일 세자가 확질로 진단되고 26일 사망한 것을 기준으로 말한 것이다. 사망당일의 왕조실록에도 ‘세자가 10년 동안 타국에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두루 맛보고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수개월 만에 병이 들었는데, 의관(醫官)들 또한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쓰다가 끝내 죽기에 이르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슬프게 여겼다.’³⁶⁾라고 하였듯이, 실록에는 세자의 병증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고 귀국한지 몇 달 만에 병에 걸렸다고 하였다. 실제로 세자는 귀국할 당시부터 계속 투병생활에 있었지만, 세자의 죽음이 갑작스럽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식어로 보인다.

셋째, 독살설의 주된 것으로 세자의 얼굴이 검고 철규출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기록된 것은 소현세자 졸곡제로 6월 27일의 기록이다. 세자 사망후 약 3개월 뒤의 기록으로 사망 직후에 왜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라고 의문이 든다. 소현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추종세력이 독살설을 퍼트리고 이러한 상황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자가 음허증으로 오한발열하는 증상이 계속 되었으며 식은땀을 많이 흘려 솜옷이 흥건히 젖었다는 정황을 미루어 보면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로 인해 세자의 얼굴이 검은 빛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세완(李世完)이 세자의 검은 얼굴을 보고 독살로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철규출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세자가 사망하였을 때 진짜로 출혈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출혈이 있었다면 시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도 의관들이나 궁녀들이 출혈된 부위를 닦았을 것이다. 따라서 염습을 할 때는 세자사망 다음날인 27일로 당연히 깨끗하게 씻겨졌을 것인데, 어떻게 이세완(李世完)이 흘러나오는 선혈을 볼 수 있었겠는가? 이세완(李世完)이 세자의 검은 얼굴을 보고 독살이라 추정하고 이를 비약하여 출혈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럼 소현세자가 독살이 아니라면 왜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을까? 세자가 청나라에서 벽제에 도착한 1645년 2월 17일부터의 기록인 을유동궁일기를 중심으로 세자의 증상을 살펴보기로 하자.³⁷⁾ 도착당시에 이미 세자는 몸이 쇠약하고 노독이 쌓여 하마연을 제때에 하지 못하였다. 이는 청나라에서부터 같이 동행한 칙사가 세자의 건강을 염려하여 배례보다 음례를 권할 정도로 세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3월 18일의 기록에 의하면 ‘심한 천식(喘息) 흥번(胸煩, 가슴답답증) 혼곤(昏困, 정신 못 차릴 정도의 피곤) 등의 증세가 며칠 전부터 더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세는 모두 폐열(肺熱)에 속하므로 모름지기 화기를 다스려 위로 솟은 열 기운을 내리는 처방(淸火降氣之劑)을 써서 폐열(肺熱)을 내리면 못 증상들도 자연히 수그러들어 다스려질 것이니 청폐탕(淸肺湯)에 지모(知母) 8푼을 더하여 연달아 10첩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³⁸⁾라고 하였다.

35) 『朝鮮王朝實錄』, 인조 23년 6월 27일, 世子東還未幾得疾數日而薨 舉體盡黑 七竅皆出鮮血 以玄帳覆其半面 傍人不能辨 其色有類中毒之人 而外人莫有知者 上亦不之知也 時 宗室珍原君世完之妻 仁烈王后之孽弟也 世完以內戚 與於斂襲 見其異常 出語於人.

36) 『朝鮮王朝實錄』, 인조23년 4월 26일, 世子十年異域 備嘗險艱 東還總數月而遭疾 醫官等亦妄施鍼藥 終至不救 國人悲之

37) 김종덕, 「소현세자 병증과 치료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31, 2007:29-79
38) 「昭顯乙酉東宮日記」, 1645년 3월 18일. (전략) 自前

Table 4. 청폐탕의 사상약제 비율

처방	증상	소양인약	태음인약	소음인약	군약	효과
淸肺湯+지모	喘息 胸煩 昏困	3/16(19%)	8/16(50%)	5/16(31%)	황금	악화

Table 5. 1641년 2월 18일과 1645년 4월 22일의 소시호탕 분석

처방	증상	소양인약	태음인약	소음인약	효과
小柴胡湯+황련 치자 지각 (1641. 2. 18)	咳喘時 頭部隱痛 胸膈不安 又有惡寒惡心 頓厭飲食	3/10 (30%)	1/10 (10%)	6/10 (60%)	호전
小柴胡湯+건갈 지모 황련 치자씨 (1645. 4. 22)	喘息 胸煩 昏困 脇痛 腹中不安 眩症	4/11 (36%)	2/11 (18%)	5/11 (45%)	악화

몸이 쇠약한 세자는 3월 초부터 더욱 나빠져 천식(喘息)과 흉번(胸煩)이 있으면서 혼곤(昏困)이 나타날 정도였다. 문제는 오래된 기침에 음기를 보강하도록 자음강화(滋陰降火) 작용을 하는 자음강화탕 또는 형방지황탕을 사용하여야 하나, 오히려 열을 내리는 청폐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화기를 잡는 청폐탕(淸肺湯)은 오래된 기침과 가래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 태음인약인 황금이 군약이면서 태음인약제가 많이 구성된 처방이다.³⁹⁾ 청폐탕의 체질별 약제구성 비율은 위의 (Table 4)와 같다.

3월 23일의 기록에 의하면 ‘숨찬 증상과 천식증상이 전보다 더 심해지고, 새벽이 오면 답답증이 심해져 두통이 오고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나 물로 닦으면 약간 줄어들어 쉴 수 있다. 또한 옆구리가 당기고(脇間牽引), 가슴이 응어리지고 답답한(胸膈懊惱) 증세가 있어 때때로 발작하는데, 청심원(淸心元)을 먹으면 좀 진정되는 듯하다. 잠자리에 들 때 죽력과 생강즙을 복용하면 밤에 편히 자고, 복용하지 않으면 편치 않다.’⁴⁰⁾라고 하였다.

微稟 則喘急 胸煩 昏困等証 自數日來有加云 臣等與崔得龍等三人商議 則皆以爲此等証候 皆屬於肺熱 須用淸火降氣之劑 以瀉肺熱 則諸証自然退聽 宜於淸肺湯 加知母八分 連用十貼爲當云 依此劑入之意 敢啓.

39) 許浚, 『東醫寶鑑』, 「淸肺湯」, 治久嗽及痰嗽 肺脹嗽 黃芩一錢半 桔梗 赤茯苓 桑白皮 陳皮 貝母 各一錢 當歸 天門冬 梔子 杏仁 麥門冬 各七分 五味子 七粒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薑三棗二 水煎服(回春)

40) 『昭顯乙酉東宮日記』, 1645년 3월 23일. 近來 氣急喘滿之症 比前似加 曉來 則煩甚頭痛 寢睡不安 洗手而後 稍爲減歇 且脇間牽引 胸膈懊惱之症 有時發

세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숨이 차고 천식이 심해졌으며 열이 뜨고 속이 답답해졌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데, 우황청심환과 죽력의 힘을 빌려 겨우 잠을 잘 정도이다. 청폐탕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여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데, 태양병(太陽病)이 풀리지 않아 소양(小陽)으로 전입(轉入)된 소양인 상한발광섬어증(傷寒發狂譫語證)으로 보아 형방지황탕을 사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세자에게 효과가 없는 청폐탕을 4월 21일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4월 22일에 와서야 말린 칩과 지모 각1돈, 술에 볶은 황련, 볶은 치자씨 각7푼 등을 더 넣은 소시호탕(小柴胡湯) 3첩을 사용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늦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럼 위 (Table 5)와 같이 소시호탕이 사용했던 시기에 따라 왜 효능이 달랐을까? 첫째, 1641년 2월 18일의 세자상태는 건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었고, 1645년 4월 22일의 세자상태는 이미 정기가 고갈되어 몸이 극도로 힘들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소시호탕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당시의 증상이 서로 달랐다. 천식기운은 같지만 1645년 4월 22일의 경우 음기가 허해져 현기증이 심해지고 졸도까지 하기 때문에 소시호탕으로 다스릴 상태가 이미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4월 23일의 기록을 보면 <“증세는 어제와 다름이 없다.”> 답하였다. 약방이 문안드리며, “앞드려 듣건

作 淸心元調下 則似爲鎮定 臨臥時 竹瀝生薑汁進服之 夜則寢睡似安 而不然則不安矣.

대 추워서 떨고 난 뒤에 아직도 열기가 있다고 하시니, 지극히 걱정스러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 진맥한 의관 등은 이것이 학질이라고 관정하였는데, 내일 새벽에 마땅히 먼저 침을 놓은 뒤에 다시 의관들과 확실하게 헤아린 뒤에 약을 정하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하니, “알았다. 침 맞는 일도 또한 알았다”고 답하였다. 약방이 “오늘 정오쯤에 세자께서 다시 추위 떠는 증세가 있어서 진맥하니 ‘지난 21일 밤에 갑자기 추위 떨었었는데, 오늘 또한 그러하니 이는 분명 학질의 증상임에 의심이 없습니다. 먼저 내일 이른 아침에 침을 놓아 학질의 열을 빼내고 다시 증세를 보아 약을 의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나온다.⁴¹⁾

세자의 상태가 오한발열이 심해져 추위 떠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학질로 진단하였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학질은 말라리아를 포함한 매우 넓은 개념이지만, 양방의학에서의 학질은 대부분 말라리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혼동을 주고 있다.

학질모기에 전염되는 말라리아의 증상은 오한전열(惡寒戰慄)로 시작되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높은 열이 나며, 땀이 나는 특징이 있다. 열대지역에서는 말라리아가 1년 내내 유행하지만, 온대지역인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 특히 25°C이상 2주간 이상 계속되어야 발생한다. 따라서 1645년의 4월 날씨가 따뜻하다 하여도 말라리아모기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온도는 아니기 때문에 세자의 학질은 말라리아가 아닌 다른 종류의 학질로 보아야 한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학질은 범위가 매우 넓고 風瘧, 寒瘧, 熱瘧, 濕瘧, 痰瘧, 食瘧, 勞瘧, 鬼瘧, 疫瘧, 瘴瘧, 瘵瘧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자를 열학(熱瘧)과 노학(勞瘧) 그리고 귀학(鬼瘧)의 일종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의학수준으로 세자가 오한전열(惡寒戰慄)

하는 것을 보고 학질로 진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소양인 음허증의 한열왕래를 학질로 오인하여 치료한 것이다. 『동의수세보원』에 의하면 ‘대개 음허증은 매일 오후에 오한발열(惡寒發熱)하다가 해가 저물 때에는 도리어 약간 땀이 나고 풀리는 것이니 학질(瘧疾)로 잘못 알고 치료하다가는 흔히 사망하는 지경에 이른다.’⁴²⁾라고 하면서 소양인의 음허증을 학질로 잘못 치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세자의 증상을 학질로 보지 않고 음허증으로 보아야 하며 독활지황탕(獨活地黃湯)이나 십이미지황탕(十二味地黃湯)을 써야 하지만 세자의 증상을 학질로 보아 학질치료를 강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세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4월 24일의 기록에는 <밤에 열이 심하여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 인시 정각에 침을 맞은 혈은 간사혈과 십삼귀혈(十三鬼穴)의 제일혈(人中), 제이혈(少商) 제삼혈(隱白) 제사혈(大陵) 제오혈(申脈) 제육혈(風府) 제칠혈(頰車) 제팔혈(承漿) 제구혈(勞宮) 제십혈(上星) 제십이혈(曲池) 제십삼혈(海泉)이다. 밤에 번열(煩熱,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어 잠들지 못하였다.

약방이 “세자께서 지난 21일 밤에 갑자기 추위 떨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쳐서 22일에는 상태가 평상시와 같았는데, 23일 다시 추위 떠는데, 비록 갖옷을 겹으로 입어도 추위 움크러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가 저녁때가 되어서야 추운 기운이 비로소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번열(煩熱)이 계속되어 정신이 혼미해졌다가 청심원을 올린 뒤에야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열기가 아직 물러나지 않아 밤새 시달리며 침소에 들지 못하였으며, 목마름증 또한 심하여 정회수를 올려도 조금도 목마름증이 그치지 않으며, 천식이 거칠고 급하여 편히 눕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증상으로 여러 어의들에게 문의하니 ‘먼저 시호지모탕(柴胡知母湯)에 곱질과 함께 볶은 치자(梔子), 생강즙에 볶은 황련(黃連), 각1돈과 소금물에 볶은 황백(黃柏) 5푼을 더해 3첩을 먼저 쓰고 난 뒤에 증세가 어떠한가를 보고 다시 의논하겠다.’고 하였기에 이처럼 지어 들이겠다는 뜻을 감히 아뢰입니다.”라고 임금께 아뢰었다고

41) 『昭顯乙酉東宮日記』, 1645년 4월 23일. 寒戰之後 尙有熱氣云 伏不勝憂悶之至 入診醫官等 以爲定是瘧疾 明曉 當先下鍼後 更與醫官商確議藥之意 敢達答曰 知道 受針事 亦知之矣. ○藥房 啓曰 今日近午 世子 復有寒戰之候 令朴頤 李馨益等 入診 則以爲去二十一日夜間 猝然寒戰 今日亦復如是 此必瘧候無疑 先於明早施針 以瀉瘧熱 更觀症候 議藥爲當云 使李馨益 依此臨時入針之意 敢啓.

4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龔信曰 凡陰虛證 每日午後 惡寒發熱 至晚 亦得微汗而解 誤作瘧治 多致不救.

Table 6. 가미시호지모탕의 체질별약제 분석

처방	증상	소양인약	태음인약	소음인약	군약	효과
柴胡知母湯+치자 황련 황백	熱盛 煩熱 寒縮 精神昏迷 煩惱 渴候亦多 喘息麤急 不得安臥	5/14 (36%)	2/14 (14%)	7/14 (50%)	시호지모	없음

나온다.⁴³⁾

백사(百邪)와 전광(癡狂)으로 인한 병에 사용하는 혈인 십삼귀혈(十三鬼穴)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미 세자의 상태가 정신이 혼미하고 매우 위급한 상황에 빠져 급히 자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의원이 침을 잘못 놓아서 세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하여 부득이하게 위급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열학(熱瘡, 열로 인한 학질)과 장학(瘡瘡)에 사용하는 처방인 시호지모탕(柴胡知母湯)을 사용함으로써 세자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⁴⁴⁾ 이 처방은 (Table 6)에 보듯이 군약이 소양인약제인 시호와 지모이지만 전체적으로 소음인약제가 50%나 되는 약으로 세자에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 즉 소양인체질인 세자에게 소음인약제가 많은 학질치료약을 계속 투여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세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져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그 다음날 사망하게 된다. 사망일인 4월 26일의 기록에 의하면 <진시 정각에 세자의 증세가 숨이 막혀왔다. 소조중탕(小調中湯) 1침을 올렸다. 승언색이 “약을 올린 뒤에 담화(痰火)가 조금 내려서 잠시 진정된 듯하지만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약을 올린 뒤로 식은땀

을 많이 흘려서 두터운 솜옷이 흥건히 젖을 정도였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자 하시어 못 의원들은 잠시 나가 있게 하라고 하령하셨으며, 증세 또한 잠시 그친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약방이 “세자의 증세가 가볍지 않아서 담화(痰火)가 뜻밖에 올라갈 때가 있으니 급한 일에 대처할 방도를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임금께 아뢰었다. 오시 정각에 세자가 창경궁 환경당에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나온다.⁴⁵⁾

이렇게 사망한 소현세자의 묘지(墓誌)에 ‘세자가 오래도록 이역(異域)에 있는 동안 몇 번이나 군대의 뒤를 따랐으며, 동쪽으로 황막한 변방에 사냥을 나가다가 하면 서쪽으로 연(燕)나라 지방의 변새(邊塞)를 뚫고 지나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면서 온갖 위험한 상황을 빠짐없이 겪었으므로, 신기(神氣)는 비록 태연자약(泰然自若)하였어도 안으로는 피곤이 겹쳐 몸을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환궁(還宮)한 이후로 잇달아 오한(惡寒)이 들고 신열(身熱)이 나는 증세가 계속되었는데, 여기에 의방(醫方)까지 착오를 일으켜 결국은 일찍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으니, 아, 비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때 세자의 나이 겨우 34세였다.’⁴⁶⁾라고 『澤堂集』¹³⁾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세자가 외국에서의 생활에 몸이 쇠약해졌고 귀국한 이후 오한발열이 나고 이를 잘못 치료하여 사망하였다고 당시에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3) 『昭顯乙酉東宮日記』, 1645년 4월 24일. 夜來 熱盛 切不得寢睡矣. ○寅正 世子受鍼時 入侍醫官 朴頤 李馨益 李運 執針李馨益. 受鍼穴 間使第一穴 第二穴 第三穴 第四穴 第五穴 第六穴 第七穴 第八穴 第九穴 第十穴 第十二穴 第十三穴... 夜來煩熱 不得寢睡矣. ○藥房 啓曰 王世子 去二十一日 夜間 猝患寒戰 移時乃止 二十二日 氣候如常 二十三日 己未 又患寒戰 雖御重裘 不能禁其寒縮 至夕時 寒氣始解 煩熱繼作 精神昏迷 進清心元 稍得鎮定 而熱氣未退 達夜煩惱 不得入寢 渴候亦多 進井華水 而少無止渴 喘息麤急 不得安臥 以此症候 問于柳後聖 朴頤諸御醫等 則以爲先用柴胡知母湯 加梔子 連皮炒 黃連 薑汁炒各一錢 黃柏鹽水炒五分 三貼後 隨看症候如何 更議云. 以此劑入之意 敢啓.

44) 許浚, 『東醫寶鑑』, 「柴胡知母湯」, 治熱瘡及瘡瘡 柴胡 錢母 各一錢半 蒼朮 黃芩 乾葛 陳皮 半夏 川芎 各一錢 甘草 灸七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梅二 水煎 清晨服 午前又一服 久瘡加人參當歸(節齊)

45) 『昭顯乙酉東宮日記』, 1645년 4월 26일. 辰正 世子症候 氣息窒塞... 進小調中湯一貼後... 承言色曰 進藥後 痰火稍下 暫似鎮定 而陸降無常云 問于醫官 朴泰元 則進藥之後 多發冷汗 至於透濕重綿 故欲爲更衣 下令使諸醫暫出 而症候亦似暫歇云. ○藥房 啓曰 王世子症候非輕 或有痰火 不意上升之時 憂急之道 不可不預思. ○午正 王世子 薨逝于昌慶宮 歡慶堂.

46) 李植, 『澤堂集』, 「昭顯世子墓誌」, 世子久留異域 數從軍旅 東獵朔荒 西穿燕塞 跋履山川 備經危險 雖神氣自若 而內受勞傷 還宮以後 連有寒熱之感 醫方錯誤 竟至不祿 嗚呼痛哉 世子壽三十四

Ⅲ. 結 論

비운의 왕자 소현세자는 삼전도의 치욕을 목도하고 인질로 청나라에 가게 된다. 세자는 26세부터 33세까지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3달도 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어 독살설 등이 난무하게 된다. 이에 『심양일기』와 『을유동궁일기』에 기록된 세자의 병증과 치료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당시의 의관은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 준하여 침구치료와 약물치료를 하였다.

둘째, 일기에 기록된 병증과 치료과정을 보면, 소현세자는 소양인으로 판단된다. 세자의 소양병증은 소양인 특유의 증상이며, 소양인약재가 주된 처방은 세자에게 효과가 좋지만 소음인약재 태음인약재가 많이 처방된 것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세자는 결흉증과 음허오열로 고생을 하지만 학질로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양인 소양병증인 두통(頭痛) 발열(發熱) 한열왕래 오한 등에 일반적인 감기치료를 맡을 내게 하면 발광섬어(發狂譫語)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열병이나 전광(癲狂)으로 보아 학질치료를 계속하면 음기가 더욱 허해져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세자가 바로 이에 해당된 것으로 보인다. 즉 소현세자의 독살설은 세자일기의 기록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한의학에서 말하는 학질은 말라리아를 포함한 매우 넓은 개념이다. 고열과 주기적인 한열왕래(한열발작) 증상이 있을 때 학질로 진단하지만 그 종류가 매우 많다. 따라서 세자의 증상을 보고 학질로 파악한 것은 당시의 한의학 기준으로 본 것일 뿐으로 말라리아모기에 의한 것은 아니다.

Ⅳ. 參考文獻

1. 金龍德. 朝鮮後期思想史研究. 서울:을유문화사. 1977:425-435.
2. 박성순. 선비의 배반. 서울:고즈윈. 2004:158-163.
3. 서정우. 사건과 인물로 읽는 이야기 조선왕조사. 서울:푸른숲. 1996:216-228.
4. 이덕일. 누가 왕을 죽였는가. 서울:푸른역사. 1998:71-108.
5.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 研究. 서울:集文堂. 1998:186-190.
6. 李迎春. 朝鮮後期 王位繼承의 政統성능쟁 研究. 성남: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154-164.
7. 김종덕, 소현세자 병증과 치료에 대한 연구. 奎章閣. 2007;31권:29-79.
8. 『瀋陽日記』, 규장각복사본.
9. 『乙酉東宮日記』, 규장각복사본.
10.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서울:대성문화사. 1998.
11. 許浚, 『東醫寶鑑』, 韓國醫學大系 11-14卷, 驪江出版社. 1988.
12.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1955.
13. 李植, 『澤堂集』, 韓國文集叢刊, 景仁文化社, 1991.